

News

'50년 주담대' 칼뺀 당국…대출한도 축소키로

이데일리

<https://zrr.kr/MOKb>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만기'를 축소

50년 만기로 빌리면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됨

토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뒷걸음질…케이뱅크는 소폭 증가

한겨레

<https://zrr.kr/TyGO>

공격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했던 토스뱅크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최근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을 낮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비중을 높이는데 사활, 카카오뱅크는 전분기 대비 2%포인트 끌어올리며 선방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탄다…금융위, 31일부터 대환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cT6f>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용한 자영업자들은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됨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재검사

노컷뉴스

<https://zrr.kr/CX8n>

금감원이 발표한 대로 디스커버리 펀드 등 재검사에서 운용사들의 위법 행위가 새롭게 드러남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가능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방식 적용도 검토

"실적 개선 자신 있다"…자사주 매입하는 보험사 CEO

FETV

<https://zrr.kr/dlWm>

IFRS17 시행 첫해인 올해 책임경영 강화에 나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침으로써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혼란을 잠재우고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계획

내달 바뀌는 보험 규정 '多'…분주한 보험업계

보험매일

<https://zrr.kr/GbcX>

단기납 종신·간호간병·운전자·어린이보험 등

상품 구조 개선…일각 지나친 개입 불만도

증시 맴도는 단기자금…MMF·단기채·파생형 ETF '뭉칫돈'

데일리안

<https://zrr.kr/O4Jc>

설정액 179조…개인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

초단기금리 투자상품 자금 유입 1·2위 기록

규제 강화에도 CFD 놓지 못하는 증권사…왜?

이코노미스트

<https://zrr.kr/WxDH>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등 5개사는 9월 1일부터 CFD 서비스 재개

증거금률 상향·잔고 표기 등 규정강화에도 양도세·5%를 회피 가능…장점도 많아